

‘현우경’ 이야기 (50)

선사 태자와 약사 왕자 ③

약사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왕은 아들들이 돌아오니 기뻐서 생각했는데 약사 혼자만 돌아 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선사는 어찌 된 것이냐?”

“형님이... 형님이...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를 당했다 말이나?”

“무리해서 바다 가까이 있는 보물을 가지러 갔다가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래서 너 혼자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냐? 어찌 형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던 말이냐?”

약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며 이야기를 했다.

“제가 위험하다고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만 좀 일렀건만... 형님이 욕심을 내서 바위가 있는 쪽으로 올라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정녕 선사가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

“시체는... 시체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단 말 아니냐?”

“그... 그것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신하를 불렀다.

“개 아무도 없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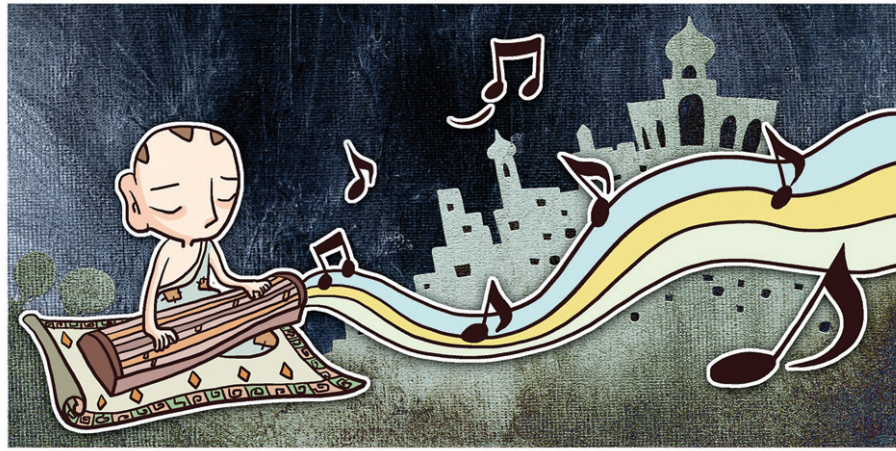
“네에 마마.”

“선사를 찾아라. 선사가 갔던 보물섬과 그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땅을 모두 뒤져서라도 꼭 선사를 찾아야 한다.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 안 그러면 네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약사는 털썩 겁이 났다. 선사가 살아 있더라도 하면 어쩌일까, 난감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졌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위로했다.

한편, 선사는 혼자서 저작거리로 나섰다. 그가 아는 것은 이곳이 리사발타국의 성안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기도 하고 따귀를 맞기도 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슬픈

눈먼 태자의 거문고 선율이...



삽화·강병호

일이었다. 눈으로 즐기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의 눈은 오직 내면으로 향했다. 저작거리에서 자리를 잡은 선사는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그 깊은 심연의 아픔이 선사의 손가락을 타고 거문고 줄에 닿으면 슬픔도 원망도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흘러내렸다. 이제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문고를 타는 일 밖에 없었다.

그의 음악은 길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다투던 부부들은 화해를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사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선사 역시 거문고에서 위안을 얻었다. 거문고를 타면서 그가 한 나라의 태자였던 사실도 그리고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모두 잊었다. 사람들은 선사 앞에

머리를 두고 가고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다. 성안에 있던 오백 거지들은 선사에게 동냥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 선사는 그렇게 거리를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리사발타국의 왕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저작거리에는 선사의 거문고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선율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 발길을 멈추고야 말았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왕은 선사 가까이로 갔다.

“너는 누구냐?”

“저는 그저 거리를 떠도는 거지일뿐입니다.”

“누구에게 거문고를 배운 것이냐?”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잊었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그저 제 손이 거문고를 기억할 뿐입니다.”

“너의 소리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내 옆에서 거문고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선사는 리사발타국 왕궁으로 들어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선사의 연주를 듣는 내내 왕의 마음은 충만했으며 기쁜 마음이 되었다. 선사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매일 매일 자신의 처소에서 거문고를 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공주가 우연히 선사의 처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렇게 내내 서서 공주는 선사의 거문고 소리를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옆의 시녀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아마도 눈먼 장님이 탄다는 거문고 소리인듯 하옵니다.”

“눈먼 장님이 어찌 거문고를 탄단 말이냐?”

“그것이 신기하게도 눈을 감고도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거문고를 타 두루 놀라고 있다고 하옵니다.”

“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공주는 선사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선사는 온몸이 빛나는 귀공자였다. 공주의 눈에는 선사의 상한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52)

-말만 듣고 깨달음을 얻다-

구성-김흥인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전문연승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공한 33가지

031-534-3373

불성의 광명과 긍정의 힘
제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중

《다라니의 힘》
수지심사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1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법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개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국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 충청도 : 010-8674-2357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